## 냉장 및 냉방분야 HFC-134a 저감 기술의 감축 잠재량 및 예상 감축량

에코네트워크(주)

#### 목 차

- 1. Non-CO<sub>2</sub> 온실가스 저감기술
- 2. HFC-134a 배출량 산정
- 3. HFC-134a 감축량 산정
- 4. 종합

# 1 Non-CO $_2$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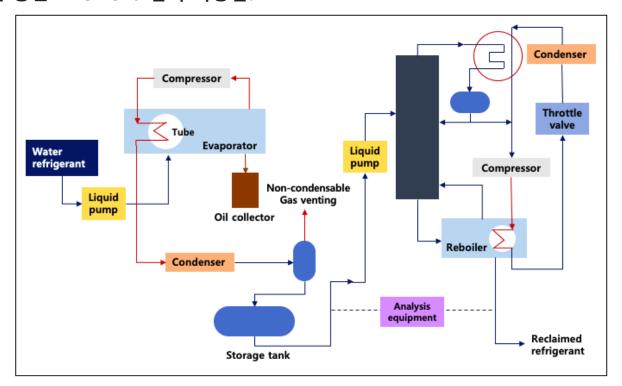
▶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Non-CO₂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을 발족함.

구분	내용
사업 기간 및 예산	총 사업기간 : 2013년 9월 ~ 2020년 12월(7년 4개월) - Phase I : 2013년 11월 ~ 2017년 4월(3년 5개월), 정부출연금 368억 원 - Phase II : 2017년 5월 ~ 2020년 12월(3년 8개월), 정부출연금 480억 원 내외
사업 목적	전략적 집중 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Non-CO $_2$ 배출 저감기술 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분야 세계일류환경 기업 배출
사업분야	Non-CO $_2$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메탄 포집 및 활용 저감기술 개발 $N_2$ O 저감 기술 불화가스류(HFCs, PFCs, SF $_6$ , NF $_3$ ) 저감기술
사업목표	2,000만 tCO <sub>2</sub> eq에 상응하는 Non-CO <sub>2</sub>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기술이전 활성화 및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 개발 기술의 시범 적용 및 시장 보급

전략적 집중 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Non-CO<sub>2</sub>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

## 1-2 HFC-134a 저감 기술

Non-CO<sub>2</sub>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기술 중 혼합 폐냉매의 고순도 분리 정제 기술은 각기 다른 비등점을 이용하여 혼합 냉매를 분리하고, 증류 공정을 적용하여 99.5% 이상의 단일한 냉매로 만들어 재활용을 통한 HFC-134a 감축 가능함.



혼합 폐냉매의 고순도 분리 정제 기술을 통해 HFC-134a를 저감함.

#### 목 차

- 1. Non-CO<sub>2</sub> 온실가스 저감기술
- 2. HFC-134a 배출량 산정
- 3. HFC-134a 감축량 산정
- 4. 종합

## 2-1 HFC-134a 배출량 산정

- ▶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냉장 및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.
  -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96 GL에 따라 보고하고 있으며, 앞으로 IPCC 2006 GL에 따라 보고 예정
  - 2019년 5월, 2006 IPCC GL의 2019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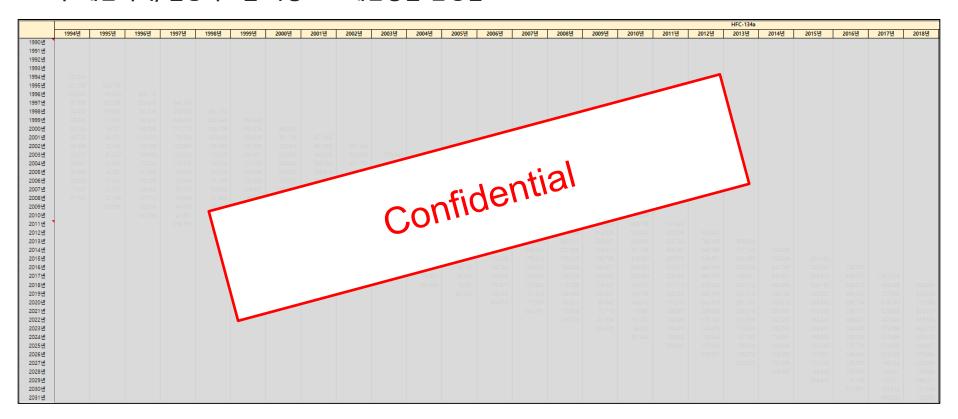
실제 배출량 = (생산량 + 수입량 – 수출량 – 폐기량) \* 합성 EF

- KITA 수출입 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량, 수입량, 수출량을 수집함.
  - 설문조사 대상은 2017년 HFCs, PFCs 수출입량 상위 98.09% 점유율에 포함되는 52개 생산업체
  - HFC-134a, HFC-152a, 기타 탄화수소할로겐화 유도체, 혼합HFCs 등 8개 HS code
  - 조사 내용은 수입가스 정보, 단일가스 생산량, 혼합가스 제조 후 수출량
  - 잠재 배출량 대비 97.4% 배출 수준의 기업이 응답함.
  -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기 데이터는 없음.

냉장 및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IPCC 2006 GL에 따라 산정함.

### 2-2 HFC-134a 배출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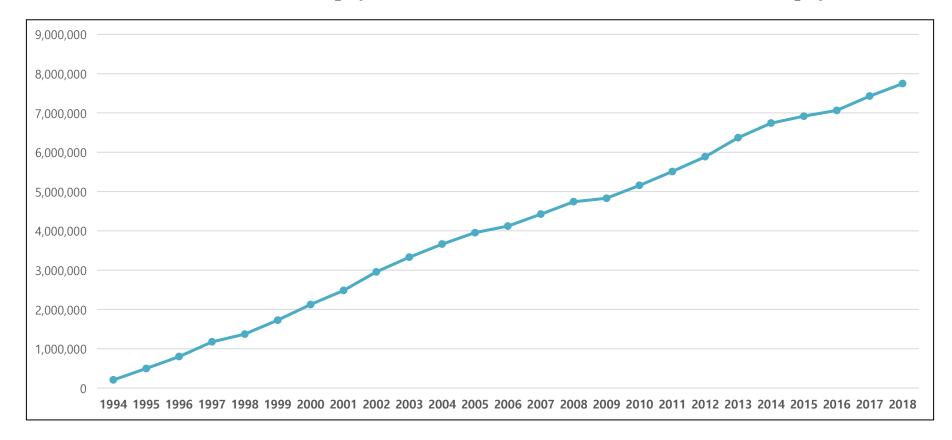
PCC 2006 GL에 따르면 HFC-134a는 15년 동안 매년 평균 15%를 배출하고, 15년 차에 잔여 HFC-134a가 모두 배출되며,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함.



잠재 배출량 대비 97.4% 배출 수준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함.

## 2-3 HFC-134a 배출량

▶ HFC-134a 는 1994년 203,967 tCO₂eq가 최초 배출되었으며, 2018년 기준 7,745,320 tCO₂eq가 배출됨.



HFC-134a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4년 최초 배출 대비 약 38배 증가함.